

라틴아메리카 중산층 정치와 경제*

루돌포 파라미오**

국가간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만 현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경제성장과 소득이전 정책에 힘입어 중산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이는 중하 계층의 팽창 같은 새로운 현상들을 불러 일으켰다. 본고에서는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과 기대, 그리고 그들이 거부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 통합과 경제성장이라는 균형 잡힌 정책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의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산층과 사회 다수계층간의 연계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핵심어: 경제, 정치, 중산층, 라틴아메리카

투표와 정책의 실행은 사람들의 경제적 이해와 입장에서 비롯된다는 관점에서 보통 경제와 정치는 서로 명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역동성을 고려했을 때 매력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제안을 실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표는 그 동안의 경제적 이해가 반영된 투표(투표자들은 이제 막 경험한 시기의 경제여건의 개선에 기반하여 결정함)와 장래의 투표(현 정부가 보이는 징후에서 유추되는 향후 경제 전망에 대한 기대가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이 투표 시 항상 개인의 경제여건의 개선(소위 주머니사정을 고려한 투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반적인

* 이 글은 ‘라틴아메리카 중산층과 협치’(Plan Nacional de ItD, CSO 2009-09233) 연구 프로젝트의 일부분이며 베드로교회재단, CISC, 오르테가 이 가셀 대학연구소가 조직한 세미나(2009년 11월, 마드리드)에서 발표한 글이다.

** Ludolfo Paramio, 공동복지정책연구소(CSIC) 연구교수이며 오르테가 이 가셀 대학연구소 라틴아메리카 프로그램 책임자.

경제나 사회적인 상황(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투표)을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권자들이 자신들 개개인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못했지만 사회 전반적 상황을 개선시킨 정권을 지지하는 것이 그 예이다.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거나 설명하고자 한다면 복잡성은 한층 더 심화된다.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는 경향때문에 급여생활자, 전문직 종사자, 소규모 사업자 등 구조적으로 동떨어진 입장들이 하나로 뭉쳐지기 때문이다. 그들의 유일한 공통점이라고는 비슷한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을 ‘중산층’이라기보다는 ‘중위 계층의 경제력이 있는 이들’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적합할 지도 모른다.¹⁾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중산층들은 현재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요소에서 비롯되었다. 첫 번째로는 비록 국가간 커다란 차이와 각자 다른 측정기준이 이러한 현상을 객관화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는 하지만 중산층 내에서 확산된 이러한 인식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²⁾ 비록 2009년도에 경제위기가 있긴 하였으나, 지난 10년의 경제성장 기간 동안 정부의 직접소득이전과 재분배정책의 결과로 생겨난 새로운 중하계층의 출현은 새로운 경제모델이 중산계층의 위기를 불러일으켜 이들 중 상당수가 새로운 빈곤층으로 전락할 거라는 90년대의 비관적인 예측을 뒤집었다.³⁾ 90년대 아르헨티나의 경우 인구의 20%에 이르는 7백만 명이 중산계층에서 떨어져 나와 빈곤층으로 전락한 바 있었다.⁴⁾

둘째로, 미디어의 해석에 따르면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에서 이제 중산층은 정치적 역할을 획득하였다. 이제 도시 중산계급은 베네수엘라의 우고

1) Maria Hermínia Tavares de Almeida y E. Nunes de Oliveira: «Nuevas capas medias y política en Brasil»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Pablo Iglesias, Madrid, en prensa.

2) Martín Hopenhayn: «¿Cómo cambió la clase media en América Latina? Elementos para el debate»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3) Alberto Minujín y Gabriel Kessler: *La nueva pobreza en la Argentina*, Planeta, Buenos Aires, 1995.

4) Liliana De Riz: «La clase media argentina: conjeturas para interpretar el papel de las clases medias en los procesos políticos»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차베스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키르츠네르 대통령의 정권에 반대하는 중심축이다.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출세 부과에 항의하여 과거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대통령을 지지하던 지방의 신흥중산계층과 도시 중산계층은 하나로 뭉치게 되었다. 에콰도르에서는 사법부 조작에 항거하여 ‘포라히도스(Forajidos: 반역자들)’라는 도시 중산계층의 항거를 불러일으켰고 이는 결국 2005년 루시우 구피에레스 대통령의 하야를 초래하였다.

중산층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정치적 주도는 그들의 전통적인 관점이었던 정치적 안정성과는 반대되는 ‘사회적 권력구조를 흔드는’ 반대운동이나 항거들과 대대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은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이 ‘본래’ 안정선호주의자나 민주주의자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특히 콜롬비아 지역과 브라질에서는 중산층의 광범위한 부문들은 정치적, 사회적 혼란의 대안으로서 군부정치를 복귀시켰던 바 있다.

중산층이 안정화 역할을 한다는 견해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어느 정도의 사유재산과 교육수준을 바탕으로 상위 계층으로부터 독립하여 생계와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이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안들에 반대 할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중산층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반과두제적인 범위 내에서만 민주적인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만약 하위층의 시위가 중산층의 이익을 위협한다면 그들은 상위층과 연합하여 대중적 반동을 좌절시키고자 할 것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군부정치와 군사쿠데타에 중산층들이 지지하였던 이유가 바로 이 같은 경우로 흔히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사회혁명의 위협과 사회적·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을 혼동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나치게 단순화시킨 감이 있다.

중앙아메리카 지역에서 일어난 내란들은 니카라과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실제 혁명의 위협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칠레 인민연합당(Unidad Popular)당 정권의 개방과정은 급진적 사회로의 변환하는 흐름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군사쿠데타는 혁명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스스로 정당화 하고는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혼란의 상황에서 비롯된 중산층의

지지를 받았다.

브라질에서는 1964년 당시 혁명의 위협이 실재 존재하지 않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 1959년에 있었던 쿠바 혁명을 언급하였다. 1973년 우루과이와 1976년 아르헨티나의 경우 당시 칠레의 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들 군부는 칠레 군부를 모방하려는 유혹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 1964년의 브라질 군부 쿠데타가 1966년의 아르헨티나 쿠데타 지휘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듯이 말이다. 마르크스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쿠데타는 프랑스 부르주아들에 의해 일어났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꼭찍한 결말이 끝없는 꼭찍함 보다 낫다”라고 생각한 중산층들의 쿠데타에 대한 지지는 쿠데타주의자들의 논쟁과는 무관하게 혼돈의 상황에 기인했을 수 있다.

한편, 중산층이 상위층과는 다른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는 그들 내부의 구조적 이질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90년대 라틴아메리카경제가 세계화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이 새로운 경제모델에서 내수시장과 관련된 공공부문 종사자와 소규모 기업들은 패자로 전락했으며 경쟁력 있는 부문과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들이 승자가 되었다.

최근 십 년 동안 변화된 것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정규직이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중산층의 회복이라는 결과를 불러왔고, 재분배정책과 고용기회의 증가는 새로운 중하계층을 출현시켰다. 따라서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원자재 수출량 및 가격 상승의 덕을 본 ‘국가의 복귀’와 새로운 경제모델의 조합에서 비롯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2008년도의 경제위기는 과거 많은 경우들과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성장에 새로운 방해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이는 평균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은 원자재 가격과 비록 2008년 상반기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강한 성장세를 회복한 중국경제에 일부 기인하였다. 게다가 신중한 경제정책이 자리 잡은 탓에 정부가 경기를 역행하여 경제를 이끌어 올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비록 2009년에는 지역 경제성장률이 1.9% 떨어졌지만 올해는 5.2%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⁵⁾

5) Comisión Económica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Cepal): *Estudio económico 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09-2010: impacto distributivo de las políticas públicas*,

만약 현재 급속도로 유럽연합 국가들에서 퍼지고 있는 재정적자 등이 원인이 되어 세계경제침체가 다시 생기지만 않는다면 2011년도에는 지난 십 년 동안 중산층이 팽창하면서 누렸던 흐름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맥락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특히 남미지역과 중미지역, 그리고 멕시코 사이에는 교역, 송금, 이주 문제, 여전히 약한 미국 시장과 관련하여 큰 차이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산층의 현실 역시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 역사적 발전패턴에 기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각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의 특수성에 기인한다. 미래 중산층의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 특히 그들의 규모, 수준, 기대와 같은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며 이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거 경험사례들도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1. 새로운 중하계층의 형성

최근 십 년 동안 빈곤을 줄일 뿐만 아니라 중하계층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요소는 재분배정책과 경제성장의 영향이다. 브라질과 베네수엘라의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이를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수치에 관한 논란이 있긴 하나 베네수엘라에서는 미션들(Misiones)이 사회정책과 결합하여 2004년에서 2008년 사이 경제성장이 활발하게 추진력을 얻어 극빈층과 빈곤층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수치에 따르면 빈곤가구는 1999년 49.99%였는데 비해 2009년 상반기에는 31.6%까지 하락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절대빈곤가구는 19.86%에서 8.70%로 하락하였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달고가 인용한 자료 분석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1998년에서 2007년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는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C계층(중산층)의 경우 18.0%에서 18.3%로 변화하였으며 D계층(하위층, 2007년

Cepal, Santiago de Chile, 2010.

6) M. Hidalgo: «Clase media y conflictos sociopolíticos en Venezuela (1998-2009): una exploración»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33.6%)의 경우 5% 이상 하락했지만 이는 E계층(2007년 45.7%)의 증가로 인해 상쇄되었다. C계층 내에서는 공공부문의 임금상승으로 인해 공무원, 군인, 간부단, 정부관련사업자들이 속한 중하위그룹이 혜택을 보았다.

차베스의 사회정책은 지출에 비해 성과가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며 높은 인플레이션과 공공서비스 및 인프라부문의 관리 부실은 저소득 부문에 치명적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새로운 중하계층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조의 정체성과 E계층의 증가가 보여준 퇴보는 여전히 주목 받고 있다.

브라질의 경우는 이와 매우 다르다. 2004년에서 2007년 사이 경제 팽창과 공공정책의 결과로 C계층은 39.85%에서 47.6%로 증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따바레스와 누네스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중하층의 팽창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헤시피와 사우바도르와 같은 주도에서는 빈곤 정도에 있어서도 커다란 격차가 존재하였다. 정치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벨로 오리존치와 같은 주도들에서 C계층은 인구의 대다수였다. (중략) 2007년에서 2008년 동안 D계층이었던 브라질인의 30%가 C계층으로 옮겨갔다.⁸⁾

소득측면에서 본 이러한 중산층의 성장은 브라질 내부의 도취감에 충만한 대중적 견해와 재분배 정책(가구로의 직접소득이전정책)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보시킨 이그나시오 루이스 다 시우바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설명한다. 비록 그의 성과가 ‘미덕과 행운’이 함께 따른 국제경제상황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긴 하지만 말이다.

C계층은 롤라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2008년도 63.5%) 노동당과 동일시 여기고 있는 비율도 매우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들 중 47.4%가 정당에 대한 선호를 표명하였으며 이들 중의 절반은 정책 입안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 편으로 C계층은 입법부와 정치계급에 대한 확연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7) Francisco Rodríguez: «An Empty Revolution: The Unfulfilled Promises of Hugo Chávez» en *Foreign Affairs*, 3-4/2008.

8) M.H. Tavares de Almeida y E. Nunes de Oliveira: «Nuevas capas medias y política en Brasil», cit.

민주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중산계층에게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결과들’이며 여기에는 계층상승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의 긍정적인 경험에서 비롯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포함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네수엘라에서는 2009년의 자료에 따르면 단지 중산층의 20%만이 차베스를 지지하였다. 중산층의 40%는 차베스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나머지 40%는 중립이라고 표명하였는데 이는 중산층의 높은 지지(1999년 91.4%)를 받았던 차베스 집권 초기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이달고의 분석은 브라질과는 달리 베네수엘라의 경우 정부의 2010년 후반의 성과들이 중산층 주요 부문들에게 자신들의 생활방식에 정부가 제한을 가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준다.⁹⁾ 브라질의 경우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관점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설득력 있는 차이점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베네수엘라의 중산층은 하위계층에서 상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차베스의 지지계층은 여전히 민중부문이고 지지층이 중산층으로 확장되지 않았다. 차베스는 ‘지지를 호소했던’ 중산층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 때문에 그들을 새롭게 등장한 중하계층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II. 부정적인 기대와 정부의 방식

초기 차베스 정권이 중산층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전통적인 정치에 대한 불만족과 정당들의 파산은 1998년 이래로 포퓰리즘과 투표로 상징되는 새로운 리더십이 출현하고 성장하는 배경이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특히 중산층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새로운 집권자에 대해 중산층의 지지가 떨어지는 때는 어떠한 때인가? 경제성장이 중간계층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발생할 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개입이나 인플레이의 압력이 중산층을 규정짓는 소득이나 소비를 넘어 그들의 생활양식을 위협할 정도라고 간주되면 신용을 높여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9) Ob. c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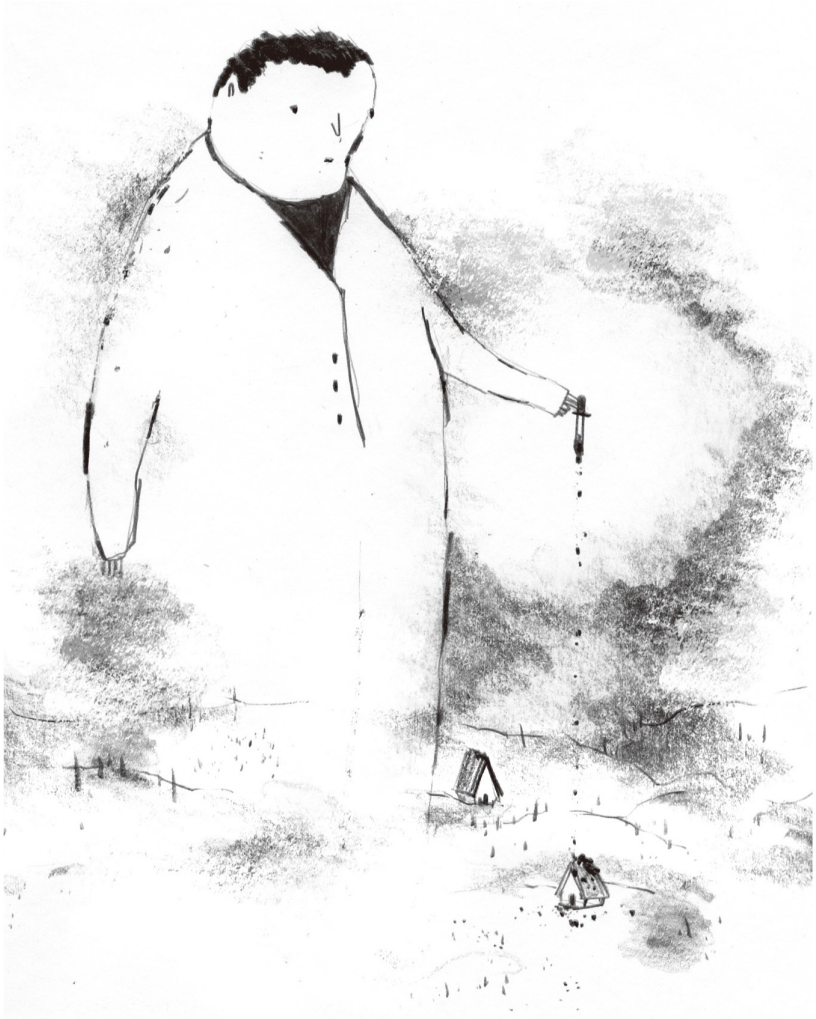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존중 역시 이러한 생활양식에 포함 될 수 있다. 2005년 에라도르 루시오 구비에레스 대통령에 대항하여 일어났던 시위는 압달라 부카람 전 대통령의 기소를 종결하기 위해 사법부 조작을 의도한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대응이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중산층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재건하기 위한 긍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전을 집권 초기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시도한 네스토르 키르츠네르와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 정권의 통치스타일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정부의 스타일과 담론도 중산층의 반대를 유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교육 수준과 정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중산층은 민중부문과 스스로를 동일시하는 ‘서민’정부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추론은 환율이 좋았던 호경기 시절 카를로스 메넬이 중산층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산층의 반응을 결정짓는 것은 정부의 행위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경제와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2001년 차베스의 교육법 프로젝트는 사교육을 위협한다고 생각한 중산층의 반대를 야기시켰다. 이들은 사교육이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의 재생산을 보장한다고 보았던 것이다.¹⁰⁾

계층의 소득이나 수준이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르헨티나 지방의 중산층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반대를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키르츠네르에 대해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민주적 가치나 권력에 대한 민중 담론의 거부를 넘어서 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국립통계청에 의한 조작과 인플레이션으로서, 이는 소비자이자 저축자, 연금수령자인 중산층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그럴 듯한 또 하나의 가정이 있다. 바로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기대심리이다. 아르헨티나에서는 태환위기로 인한 추락 때 일어났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풍족한 시기 다음에는 새로운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 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정통적인 방식으로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새로운 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받아들여지면서 부정적인 기대가 증가한다.

10) M. Hidalgo: ob. cit.



© Nueva Sociedad / Pablo Derka 2010

경기도 좋았던 데다가 대도시 중산층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레이션을 중화시키는 정책들이 실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산층은 2007년 10월 대선에서 크리스티나 키르츠네르 대통령에게 투표하길 주저하고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표들이 분산되어 하나의 대안세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다. 공공재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 부패스캔들, 정치근대화의 실패, 통계자료의 조작,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기반하기보다는 개인의 권력 확립에 기반한 불안정한 성장률은 공정한 처방에 방해가 되었다.¹¹⁾

이런 면에서 중산층은 당장 현 시점의 생계와 소비보다는 미래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서민층과 구분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 자신과 후손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록 현재의 경제상태가 우호적으로 보일지라도 이러한 지속성이 위태롭다고 본다거나 혹은 미래에 위험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들의 소득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까지 심각하게 위협하였던 경제위기의 경험이 각인된 것이 중산층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나 반대를 설명해 주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III. 폐쇄와 특권

공공정책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중산층이 보수적인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이유로는 그들이 미래의 위험부담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이러한 두려움은 특히 경제에 대한 기대치가 낮은 시기, 중산층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중산층과 민중계층의 괴리가 큰 상황들로 인한 취약성에 기인한 인식과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다.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 중산층이 소수인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중미의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가 이에 속한다. 중산층이 축소될 때 사회질서의 급진적 변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재분배를 지향하는 공공정책이나 조세책정에 대해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클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지위와 소득이 위협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자신의 이익이 상위층의 이익과 잘 부합한다고 느낀다면 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다수의 의견이 함께 반대로 모아질 때도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바로 1978년 니카라과에서 일어났다. 호아킨 차모로가 아나스타시오 소모사에 의해 암살당하자 그의 악랄한 정치행동에 위협을 느낀 중산층과 상류층 역시

11) L. De Riz: ob. cit.(강조는 필자의 것임)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권과 관련이 없던 산디니스타(Sandinista)를 지지하였고, 이에 산디니스타는 폭넓은 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아 함께 혁명을 일으켰다. 이같은 일은 현재 무법상태로 나아가는 듯한 다니엘 오르테가의 두 번째 집권의 점진적인 이동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구조상 중산층의 상대적 가중치에 따라 90년대 경제변혁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시장에 종사하는 낮은 경쟁력의 공공부문 종사자들과 소규모 지주들은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이 이득을 보는 경제자유화 개혁에는 반대할 것이다. 반면 숙련공이나 관리자, 전문가로서 고객층이 이러한 새로운 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고객을 두게 되어 이미 해당 부문에 편입된 중산층들은 재분배의 공공정책이나 조세정책에 반대는 하겠지만 이와 같은 변화로 이득을 볼 것이다.

코스타리카 중산층에서 일어난 일은 중산층이 후반세기 중요성을 획득한 이 중앙아메리카 국가에서 그들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어 어떻게 분열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변화는 중산층의 파편화를 촉발하였다. (중략) ‘승자편의 중산층은 대개 시장과 결부된 이들이었고 ‘패자편의 중산층은 국가와 결부된 이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파편화는 개인주의화에 따른 결과물이었고 이는 세계화된 시장의 변동성이 야기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엘리트들은 불확실성과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데 반해 필시 중산층들은 이와 같은 위험 현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¹²⁾

그러나 동시에 상위층은 승자인 중상위층과도 거리를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다른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상위층은 성장하여 엘리트화 될 수는 있으나 불확실성을 느끼기 때문에 경기 위축과 위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족해방전선(PLN: el Partido de Liberación Nacional)이나 사회기독교통합당(el Partido Unidad Social Cristiana)과 같은 전통

12) Minor Mora Salas y Juan Pablo Pérez Sáinz: Se acabó la pura vida: amenazas y desafíos sociales en la Costa Rica del siglo xxi, San José de Costa Rica, Flacso, 2009, citado en Manuel Rojas Bolaños: «Las clases medias en Costa Rica»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적 정당에 대한 중산층 표의 잠식이 이러한 결과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¹³⁾

멕시코에서는 ‘6년 집권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금융위기 시기, 특히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와 카를로스 살리나스 데 고르타리 집권 말기의 재난과도 같았던 상황에서 누적된 영향이 부가되어 상황이 더욱 복잡하다.

이 같은 경제위기와 살리나스의 개혁이 미친 영향의 대가로, 공공정책 부문의 상당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중산층들의 매우 부정적인 기대심리가 형성되었다. 동시에 그들은 신념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화에 대한 모험을 시도하였다.

경제개혁의 막바지 시기에는 소득의 집중화가 심해졌고 사회구조는 경직되었으며 사회불평등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제여건을 감내했던 이들과는 반대로 중산층들은 위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을 굳건히 하고 공고화하였다. 중산층과 정치엘리트 사이의 연계에 의해 진행된 민주화는 제도혁명당(PRI) 해계모니를 해체하는데 이르렀다. 비록 그 동기는 제각각이었지만 사회 안정과 지속성을 최우선 과제로 합의한 정치연대는 이러한 정치변화를 이룩한 이래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¹⁴⁾

IV. 정치적 대표성의 부재

중간 계층이 보여주는 이러한 정치적인 움직임에서 계속되는 결과물의 나열이 보여주는 명백한 문제 중 하나는 자신들을 대표한다고 느낄 만한 정당의 부재이다. 중간 계층이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계급이기보다는 세대에 따라 나뉘어진 계급, 즉 여러 다양한 직업들로 이루어진 계급으로 인식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들이 하나의 뚜렷한 정치적 목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3) Mylena Vega: «Evolución de las clases en Costa Rica: ¿desaparece la clase media?» en Víctor Hugo Céspedes y Ronulfo Jiménez: Distribución del ingreso en Costa Rica, 1988-2004, Academia de Centroamérica, San José de Costa Rica, 2007.

14) Soledad Loaeza: «Las clases medias mexicanas y la apuesta por la estabilidad» en L. Paramio (comp.): Clases medias y gobernabilidad en América Latina, cit.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르헨티나의 급진시민연합(UCR: la Union Cívica Radical)이나 코스타리카의 국민해방당(PLN: Partido Liberación Nacional)이 중간 계층들 내 영향력 있는 집단들의 지지에 의존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변한 것이 있다면 90년대의 개혁을 거치면서 중간 계층이 승자와 패자로 분열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빈곤층’들, 그리고 경제의 세계화 및 자유화로 인해 위협받았다고 느끼는 중간 계층 내 집단들은 중간 계층의 ‘승자’ 집단과 이익에 대한 정이가 거의 일치하지 않고, 당연히 정치적인 선택도 일치하지 않는다.

한편, 급진시민연합과 Frepaso(정의당에서 탈당한 중도좌파세력)의 동맹의 경험은 승자 집단의 복지와 패자 집단의 보호를 조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페르난도 데 라 루아 정부의 처참한 최후는 이 프로그램의 키워드인 호환 가능성이 실행 불가능한 것임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산 계층 내에서의 서로 다른 이익과 사회 전반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밝혀내는 일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

이는 바로 우리가 ‘사회민주 프로그램’이라 부르는 것이다. 2009년의 전지구적 위기를 통해, 라틴아메리카는 호의적인 국제 분위기 덕분에 빈곤을 줄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평등의 사슬고리를 끊는 역사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⁵⁾ 사회적인 결속과 경제적인 성장을 조절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대가 존재한다. ‘위싱턴컨센서스’와 ‘두 번째 세대의 개혁’을 훌쩍 뛰어넘는 국가와 정책의 과제들에 대한 새로운 개념 또한 존재한다.

문제는 중간 계층, 노동자들과 소외된 집단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규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주 소수의 나라들에서만 ‘사회민주 프로그램’을 육성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정치적인 방식이 존재한다. 개인주의자들과 국민투표주의자들의 경쟁적인 제안들은 보수적인 집단들이 부의 재분배와 국가의 더 큰(혹은 더 나은) 개입을 마치 ‘포폴리즘적인’ 위협처럼 나타내며 중산 계층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기 위한 논쟁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한층 더 상황을 복잡하

15) Programa de las Naciones Unidas para el Desarrollo (pnud): Informe Regional sobre Desarrollo Humano para América Latina y el Caribe 2010. Actuar sobre el futuro: romper la transmisión intergeneracional de la desigualdad, pnud, Nueva York, 2010.

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새로운 빈곤으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중산계층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결속된 사회를 형성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을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새로운 세대들이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유리한 상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김윤옥 번역)